

늦은 공부, 저에게는 새로운 희망입니다 택시기사 이용태 씨

‘O2O 택시앱 서비스 품질, 고객만족도가 재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택시산업에 대해 보기 드문 주제의 논문이 나왔다. 우리가 흔하게 이용하는 카카오택시 같은 온·오프 택시 서비스를 분석해 논문으로 쓴 주인공은 53세 택시기사 이용태 씨이다. 공부를 시작하기에는 다소 늦은 나이, 불편한 몸, 아이를 혼자 키우는 아빠 등 그를 수식하는 악조건은 여러 가지다. 하지만 이용태 씨는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를 냈다. 지금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한 희망 찾기, 그에게는 그 통로가 공부였다.

글. 공주영 사진. 주효상

어느 날 불쑥 예고 없이 찾아온 역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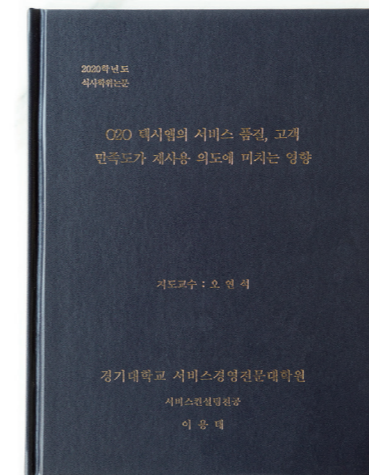
인생이라는 길을 잘 닦인 포장도로로만 달리는 사람은 없다. 고양 시내를 누비며 택시 운전하는 이용태 씨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20대 활기차게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척수염이라는 병마를 만났고 갑자기 왼쪽 다리에 장애가 왔다. 그런 가운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택시를 몰게 된 것은 그때가 시작이었다. 2년 동안 열심히 택시 운전을 하다가 월수입이 더 높은 자동차 페인트 배달 일을 나가게 됐다. 그런데 너무 욕심껏 일해서일까. 출근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아픈 왼쪽 다리 대신 오른쪽 다리를 집중해서 쓰다 보니 고관절에 무리가 온 것이다.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고 일 년 넘게 병원만 다녔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일을 오래 한다는 것은 마음에 큰 부담이었다. 가장의 책임감을 어깨에 지고 이용태 씨는 택시 운전대를 다시 잡았다. 당시 택시 일은 격일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공부하기엔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런 제 생각을 말하고 나서 허락을 받은 다음, 경기도 평생교육원에 편입해 경영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고양 시민의 발, 택시를 통해 받은 고마운 위로

근무 형태로만 보면 공부하기 수월한 조건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일과 학업을 병행해보니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그래도 이용태 씨는 택시를 몰고 수업에 가는 고된 일상에서도 즐겁게 공부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역경이 찾아왔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한 그해 가을, 베트남인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갔다. “대학 수업을 열심히 받는 저를 보고 담당 교수님이 학사 학위를 딴 이후에도 멈추지 말고 계속 공부하라며 대학원 진학을 권유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학업을 이어나갔습니다.” 택시기사는 홀로 육아를 하는 이용태 씨에게 더없이 고마운 직업이었다. 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 생기면 아이에게 갈 수 있었다. 마음이 힘들 때면 택시에서 만나는 손님들에게 위로를 받았다. “택시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타면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저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준 분들이 많았죠. 그럴 때마다 마음의 위안을 많이 얻었습니다.”



‘O2O 택시플랫폼’ 연구에 관한 석사논문



공부로 얻은 새로운 희망, 미래를 향한 땀방울이 되다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논문 주제를 정하면서 이용태 씨는 O2O 택시플랫폼에 대한 연구를 해봐야겠다고 결심했다. “택시앱에 관련된 내용으로 학위논문을 쓰자고 마음먹고 관련 논문을 찾아봤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선행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쓰다 보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석사 논문이 나온 뒤, 동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공부를 끝낼 수 있도록 배려해준 회사에서도 가족같이 기뻐해 줬다. “택시 관련 정책을 논의할 때, 현장에서 일하는 택시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기사들이 지금보다 안정적이면서도 자긍심을 가지며 일할 수 있겠죠.” 이용태 씨는 되풀이되는 역경에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코로나19와 같이 택시기사들에게 어려운 이 시기도 다 같이 힘을 내서 이겨 나가길 바라고 있다. “포기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힘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희망을 찾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